

보도시점 2024.12.6.(금) 17:00 배포 2024.12.6.(금) 14:00

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, 방위산업 분야 수출애로 해소에 나선다

- 관계부처·기관 합동 방위산업 분야 중견·중소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

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(단장: 기획재정부 제1차관, 이하 ‘지원단’)이 방위산업 분야 수출애로 해소에 나섰다. 지원단은 12월 6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국토부, 해수부, 조달청, 방사청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KOTRA,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방위산업 분야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질문에 답하고, 기관별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였다.

< 방위산업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4.12.6.(금) 14:30~16:30 / 한국수출입은행(서울 여의도동)
- 참석자 : 원스톱수출·수주지원단(김동준 부단장 주재), 국토부, 조달청, 방사청, 수출입은행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방위산업 분야 중견·중소 업체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
- 주요 내용 : 방위산업 분야 수출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애로 해소방안 논의

이번 간담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예산 증액계획 및 나토 방위비 증액 요구, 우크라이나-러시아 전쟁 및 중동분쟁 장기화 등이 한국 방위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관련기업들의 애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금융, 물류/통관, 군용물자 수송 등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하였다. 지원단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은 신시장 진출 자금지원,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, 물류통관 교육프로그램, 전시품 수출허가 확인 시스템 등 현재 시행 중인 수출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, 방산기업 대상 우대 보증한도 책정, 해외공관 관세관 파견 확대, 전략물자 정기선 선적 등 여타 애로사항은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.

김동준 부단장은 “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K-방산 수출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”면서, “지원단은 2027년까지 세계4대 방산수출 강국진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

담당 부서	원스톱 수출·수주지원단 수주인프라지원팀	책임자	팀 장	김현진 (02-6000-5784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근 (modernity@korea.kr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